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홈페이지 www.can.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월8일(화)	매 수	7매
		보도일시	배포즉시		
	미래소비자행동 02-706-1372 보도자료 관련문의 : 상임대표 조윤미 (010-6205-9263)				

“간호법, 의사 등 보건의료인 모두 제정에 공감”

- 76.1% 필요성 인정...간호인력 부족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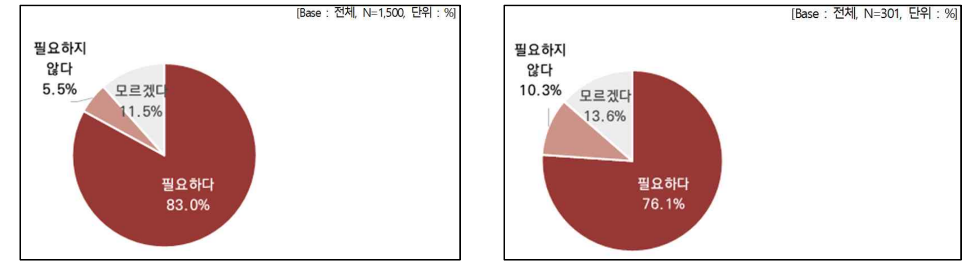
■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공동대표 허영숙·김향자)은 소비자전문조사기관인 (주)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500명, 보건의료직능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온라인 패널 대상 1차 조사에 이어 2차조사 2022년 2월 3일(목)부터 2022년 2월 6일(일)을 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2.53%p).

구 분	조사 설계 내용
1. 조사명	• 간호법 제정 관련 소비자 의견조사
2. 조사대상	• 소비자: 20대 이상 일반국민 •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관련업 종사 경험이 있거나 종사 중인 자)
3. 표본수 (표본오차)	• 소비자: 1,500명 (±2.53%) • 보건의료인 : 301명 (±5.65%)
5.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6. 조사기간	• 1차: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1년 12월 23일(목) • 2차(추가조사): 2022년 2월 3일(목)부터 2022년 2월 6일(일)

▶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에 공감

최근 보건의료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의 제정에 관하여 소비자의 83.0%,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영양보호사, 영양사 등)대상 조사에서도 76.1%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그림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소비자

보건의료인

< 표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 분		조사대상(명)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소비자		1,500	83.0	5.5	11.5
보건의료인		301	76.1	10.3	13.6
직종	의사	16	50.0	25.0	25.0
	간호사	68	80.9	13.2	5.9
	간호조무사	62	80.6	8.1	11.3
	요양보호사	36	83.3	5.6	11.1
	보건교육전문가	24	79.2	12.5	8.3
	약사	11	72.7	18.2	9.1
	영양사	20	55.0	10.0	35.0
기타		64	75.0	6.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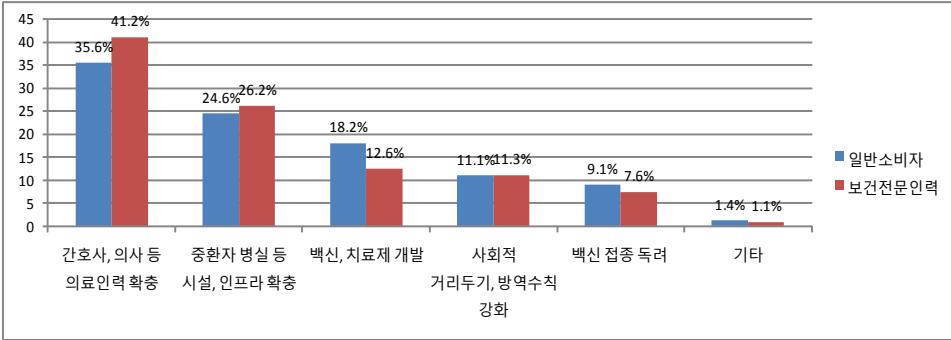
▶ ‘간호사 등 의료인 확충’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업무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질문한 결과, 소비자의 35.6%,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의 41.2%가 ‘간호사 및 의

사 등 의료인력 확충’ 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의료인력,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엄청난 고통과 긴장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의견



▶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 부족이유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조기퇴직률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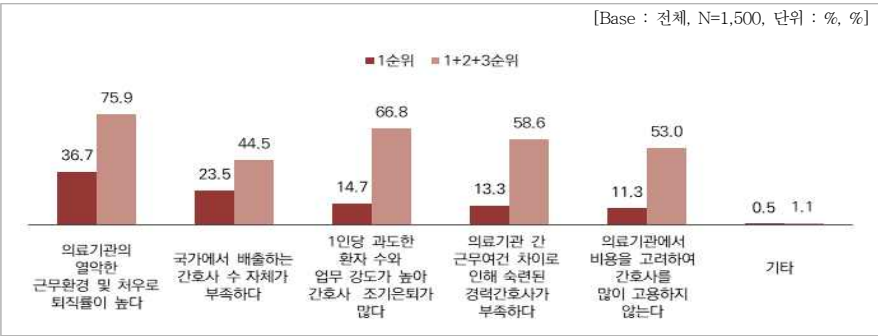
의료인력 중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소비자의 25.3%,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의 25.6%가 ‘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높은 퇴직률’ 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간호업무의 과도한 업무강도로 간호사의 조기은퇴’가 소비자의 22.2%,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의 20.0% 등으로 나타났다.

<표2> 간호인력 부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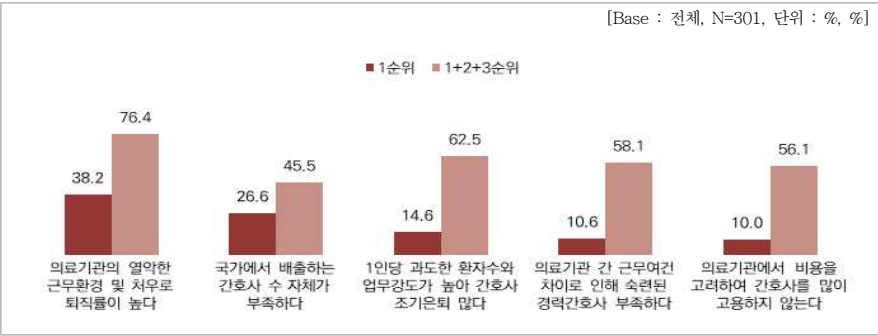
복수응답

문항	소비자(%) (n=1,500명)	보건의료인(%) (n=301명)
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로 퇴직률이 높다.	36.7	38.2
배출되는 간호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	23.5	26.6
간호업무의 과도한 업무강도로 간호사의 조기은퇴가 많다.	14.7	14.6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고려,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11.3	10.0
의료기관 간 여건차이 등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	13.3	10.6
기타	0.5	0.4
합계	100.0	100.0

<그림2>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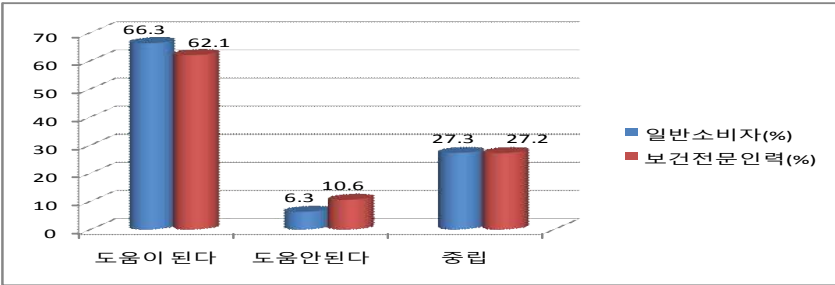
<그림3> 간호사가 부족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 (보건의료인)



▶ 소비자의 66.3%, 보건의료인의 62.1%,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양성, 배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 소비자의 66.3%,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의 62.1%의 응답자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양성, 배치에 도움이 된다 ‘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정책수단으로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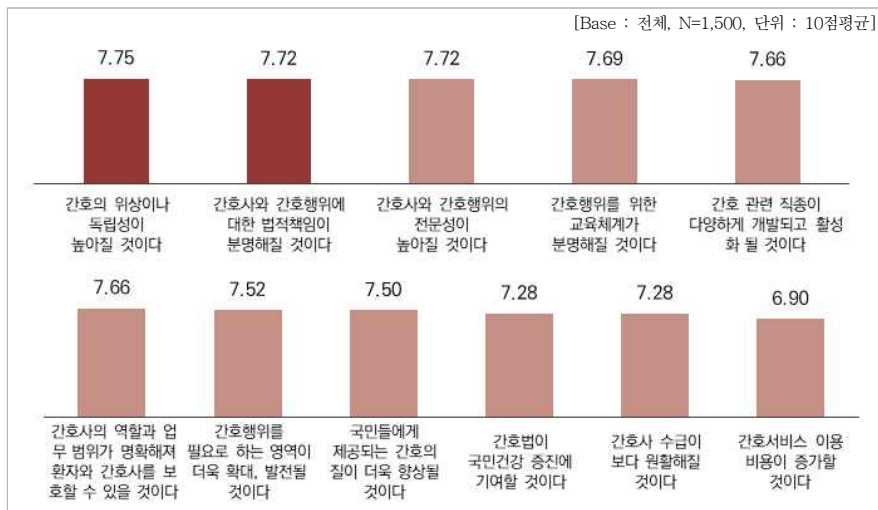
<그림2> ‘간호인력 양성, 배치에 간호법 제정이 도움이 된다’ 의견



▶ 간호법 제정 간호업무 위상 및 인력수급,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비용상승 보다 더 높은 기대

- 기존의 진료행위 범위 중 간호업무의 법적책임 명확화, 간호업무 확대·다양화 등 간호업무의 위상강화를 7.75점(10점평균)으로 가장 크게 예측했고,
- 간호인력의 전문성, 법적책임 등이 명확해 질 것 : 7.72점
-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명확해 질 것 : 7.66점
- 대국민 의료 서비스강화 등 : 7.50점 등 비교적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 간호업무 전문화로 인한 ‘서비스비용 상승’ 가능성은 6.90점으로 예측,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10점 만점)



▶ 현 의료법 ‘의료인력 양성, 배치정책’ 근거 미비, 의료소비자의 권익과 간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 시급히 추진되어야

본 조사 결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선진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은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각 업권별 이익선점을 위한 갈등보다는 상호 협력과 보완의 자세로써 낙후된 의료서비스 품질제고에 노

력하길 바라고 있으며, 품질수준이 높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사실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소비자와 관련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들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인력의 양성 및 적정배치 계획’ 수립, 실행 등에 관한 조항이 없어¹⁾ 의료법 개정만으로는 동 정책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간호 인력양성 체계 및 정책수립 근거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회에서 적극적인 법제정 논의 신속히 진행되어야 !

현재 여야 유력 대통령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약으로 밝힌바 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 하루라도 속히 적극적인 제정 논의를 통해 간호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등 보건의료 직능 종사자 모두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신속한 간호법 제정 논의를 통해 코로나 전담의료기관과 중증 환자 대치의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확충과 지방의료원 등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배치 및 인프라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상임대표 조윤미 · 공동대표 허영숙 김향자

1) 의료법 보칙 제83조(경비보조) 등의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 비계획적 사안의 ‘보조’에 불과

[별첨] 응답자 일반현황

■ 소비자

[Base : 전체, N=1,500,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
전 체		(1,500)	100.0%
성별	남자	(754)	50.3%
	여자	(746)	49.7%
연령대	20대	(152)	10.1%
	30대	(293)	19.5%
	40대	(423)	28.2%
	50대	(339)	22.6%
	60세 이상	(293)	19.5%
거주지역	서울권	(345)	23.0%
	경인권	(429)	28.6%
	충청권	(147)	9.8%
	경상권	(399)	26.6%
	전라권	(122)	8.1%
	강원제주권	(58)	3.9%
혼인상태	미혼	(545)	36.3%
	기혼(자녀있음)	(840)	56.0%
	기혼(자녀없음)	(88)	5.9%
	비혼	(27)	1.8%
최종학력	고졸이하	(253)	16.9%
	전문대졸	(185)	12.3%
	대졸	(926)	61.7%
	대학원이상	(136)	9.1%

*거주지역은 17개 시도별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통계 분석의 유의미성을 위해 상기 6개 권역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함

■ 보건의료인

[Base : 전체, N=301,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교육전문가	영양사	의사	약사
전 체		(301)	22.6	20.6	12.0	8.0	6.6	5.3	3.7
성별	남자	(155)	16.1	16.8	10.3	9.0	5.8	7.1	5.8
	여자	(146)	29.5	24.7	13.7	6.8	7.5	3.4	1.4
연령대	20대	(35)	31.4	14.3	8.6	11.4	5.7	2.9	2.9
	30대	(108)	26.9	17.6	11.1	5.6	8.3	7.4	1.9
	40대	(89)	19.1	27.0	14.6	5.6	2.2	4.5	5.6
	50대	(48)	16.7	14.6	12.5	14.6	12.5	2.1	2.1
	60세 이상	(21)	14.3	33.3	9.5	9.5	4.8	9.5	9.5